

장흥군,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박차

내한성 강한 극조생종 그린팜3 실증 재배 도입

2주 조기 수확후작물 파종·관리도 가능해 유리

장흥군이 단백질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높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종자 생산단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남축산연구소와 2009년부터 11년간 ‘전남지역 목초 신품종 이용촉진 사업’과 ‘사료배 도입한 간척지 는 이용 IRG 재종 기술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그린팜3호’는 극조생종으로 장흥군에서 많이 파종하는 중생종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다. 또한 2주 정도 조기 수확이 가능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수확기에 우기가 지속돼 저품질 조사료가 생산되는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후작물에 대한 파종·관리도 가능해 작물 재배에 유리하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종자는 대부분 수입산을 이용한다. 수입량은 연간 5천500t(18만ha 이상 재배 가능량)이다. 생산국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위험성이 있고 또한 병해충 감염 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자급률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자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은 대단위 재배 단지가 효율적이다. 장흥군의 경우 삼산간척지가 최적지

로 지목받고 있지만 염 농도가 높아 작물 재배가 쉽지않은 않다. 군은 전남축산연구소와 함께 삼산간척지에서 안정적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생산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는 “장흥한우 도체중이 480kg(전국 평균 444kg)가 넘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고품질 조사료를 급여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장흥군 기후 특성에 맞는 조사료품종을 도입 및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고병권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유아숲 체험원’ 인기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의 유아숲 체험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16일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유아들이 직접 자연과 교감을 통해 지성·감정·의지를 두루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4월부터 11월말까지)하면서 숲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유아 숲 체험원은 순천시와 화순군 등 두 곳이며 유아 숲 지도사와 숲 해설사, 산림 치유 지도사 등이 배치돼 있고 각각 야외체험학습장 및 대피시설은 물론 다양한 식생을 갖춰 유아들이 도심에서 즐기지 못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교육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유아숲 체험원’과 ‘숲 해설’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영지원팀(061-740-9332)으로 연락하면 된다. /순천=남정민기자

보성군, 지방행정혁신 선진지 벤치마킹

청와대·서울시청 등 견학...지역혁신 방안 강구

보성군은 지난 15일 김철우 군수를 포함한 직원 160여명이 ‘군민의 내일을 위한 보성혁신’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서울시청 등 국가 주요 행정기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방문해 홍보관을 시작으로 녹지원, 본관, 영빈관, 청와대 사랑채 등을 둘러보며 자치분권, 행정혁신 등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서울시청에서는 관청 및 행정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수직정원, 정책도서관, 전시장, 이벤트장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의 최종 목적지는 군민의 행복한 내일, 희망찬 미래”라며 “이번 벤치마킹이 보성군의 장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다향대축제 등 5대 축제를 통합 개최해 예산 절감과 콘텐츠 다양화 등 정형화된 전통에서 벗어나 지역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임병민기자

화순군, 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 운영

화순군이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보건소는 지난 14일 화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보건소 전문 금연 상담사가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니코틴 소변 검사, 일산화탄소와 폐활량 측정, 개인별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동 금연 클리닉은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개인별 맞춤 상담과 교육을 진행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금연 클리닉 서비스는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38)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단체가 이동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금연 상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이병철기자

‘2019년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

교육·문화체육부문 신선 호남대 초빙교수
명예군민 고명석·구자영·박종범·오득실씨

완도군은 지난 14일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완도군민의 상’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 수상자로 신선(50·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씨를 선정했다. 명예군민으로는 고명석(53·해양경찰교육원장)씨, 구자영(57·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씨, 박종범(61·기업인)씨, 오득실(49·전남산림자원연구소)씨를 선정했다.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에 1명, 명예군민에 4명이 추천돼 ‘완도군민의 상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석위원 중 2/3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선정했다.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된 신선씨는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이며 화가로 활동 중이다. 완도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고향 알리기에 앞장서왔다. 또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전국적으로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 명예군민에 선정된 고명석씨는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경찰의 뿌리 찾기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해상을 장악한 장보고의 업적을 재조명한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 올

해 장보고수산물축제에 해양경찰의 장대 및 악대를 참여시키는 등 공을 인정받았다. 구자영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 완도군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완도군 물하태 선착장에 경사식 물양장 도로표지병을 설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범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영산그룹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 동포 중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해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상(韓商)에 주어지는 2018년 장보고한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오득실씨는 완도수목원장 재직 시 완도 수목원 경관 개선을 통한 볼거리 증진과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산림 문화



신선



고명석



구자영



박종범



오득실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0만원

급매 - 1억1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